어린 친구들을 위하여



기도하면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.

노에미 시, 5세, 이탈리아 피에몬테



저는 아빠를 웃겨 드리려고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요!

엘리엇 제이, 3세,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







